

수도권 창구 일원화로 채란산업 발전 기대



▲ 오세을 연합회장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수원축협 회의실에서는 100여명의 채란인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산란지부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연합회 구성을 갈망하던 경기도 지부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결성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축산지원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양태흥 경기도의회의원, 본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오정길 한국양계조합장, 조충희 경기도 축산과장, 박근식 대한양계협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채란의 권익보호에 앞장

경기도내에는 350명의 채란인들이 채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약 1,200만수에 달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전국의 생산량중 20%의 시장을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회 8개 지부 회원 농가수도 250여명으로 경기도내 채란인중 7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오세을 연합회장은 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경기도와의 연락창구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채란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득향상은 물론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채란업에서의 현안문제가 “한미 FTA”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고 채란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을 공급” 하기 위해 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만형 광주지부장의 선창으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질병 예방 활동, 계란품질 향상, 자조금사업 적극 동참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방역, 친환경, 브랜드 사업에 중점

▲ 경기산란지부 연합회 창립을 축하하며(좌부터 최길영 경기도육계지부연합회장, 조총희 경기도축산과장, 최준구 본회회장, 오세을 연합회장, 양태홍 경기도의회의원, 박근식 본회 고문, 최홍근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오정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오세을 연합회장은 전국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의 하나인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지방정부와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왔다고 전제하고 이제 연합회 결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동안 오세을 지부장은 여러차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연합회의 창립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도청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요청을 해오면서 시대적인 조류에 발맞추어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총회 자리에 참석한 양태홍 도의회 의장과 조총희 경기도 축산과장도 그동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대화채널이 없어 미진했던 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합회를 통해 채란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을 연합회장은 지부회원들의 결속을 모으는데 역량을 발휘할 뿐 아니라 우선 방역사업, 친환경사업, 브랜드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방역사업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백신 및 소독약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친환경 사업은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브랜드 사업은 타 지방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경기산란지부연합회는 조만간 지부장단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채란업의 관심사항을 취합해 경기도청을 방문, 요구사항을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 임원명단

- 연합회장 : 오세을(포천)
- 부 회장 : 정광면(이천), 송복근(동양연)
임재룡(김포)
- 사무국장 : 이덕선(이천지부 총무)
- 감 사 : 최명구(수원), 윤형수(김포)
- 고 문 : 김선웅(김포), 천강균(수원)
이원기(포천)